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7년 12월 4일(월) (총 9쪽)	담당부서 담당자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최난주 팀장 (043-880-5421) 이진숙 과장 (043-880-5422) 김기백 과장 (043-880-5825)

자동차 이용 중 손가락머리 끼임 등 안전사고 주의

- 한국소비자원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제작사 정례협의체 공동 캠페인 시행 -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외에도 차량 이용 중 다양한 안전사고(이하 ‘비충돌사고’, non-crash incidents)*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비충돌사고의 발생 현황이나 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방안 등 안전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 (비충돌사고) 주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문 · 창문 · 트렁크 등에 끼이거나 부딪히는 사고, 승하차시 낙상사고, 차량 내 열사병 사고 등 차량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4. 1.~2017. 6.)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동차 비충돌사고는 총 3,223건*으로 연간 1,000여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900건 → ('15년) 961건 → ('16년) 823건 → ('17년 6월) 539건

□ 전체 비충돌사고의 90% 이상이 문 · 트렁크 · 창문에서 발생

비충돌사고가 다발하는 차량구조를 살펴보면, ‘문’으로 인한 사고가 80.2%(2,585건)로 가장 많았고, ‘트렁크’ 7.6%(244건), ‘창문’ 2.3%(7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의 세 장치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비충돌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차량구조별 사고 유형은 ‘문’과 ‘창문’의 경우 손가락 등이 끼이거나 눌리는 사고가 각 72.3%(1,868건), 77.3%(58건)로 가장 많았으며, ‘트렁크’의 경우 머리 등을 부딪치는 사고가 71.3%(174건)로 가장 많았다.

손상증상은 타박상이나 열상(찢어짐)이 가장 많았지만,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 골절 사고(206건) 및 절단 사고(15건) 발생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 비충돌사고의 절반 가량 어린이에게 발생

비충돌사고의 약 절반(49.9%, 1,608건)은 만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으며, 승용차의 주 운행 계층인 '30대~50대'도 3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경우, '문'(83.3%, 1,340건), '트렁크'(3.5%, 56건), '좌석'(3.1%, 49건) 순으로 비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에 비해 좌석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안전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도 '시거잭'에 의해 화상을 입거나, '창문' 틈에 목이 끼어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위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자동차 취급설명서의 비충돌사고 주의·경고 표시 개선 예정

국내 주요 자동차 제작사 차량 5종의 취급설명서상 비충돌사고 관련 주의·경고 표시실태를 살펴본 결과, 주의사항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글씨가 작아 가독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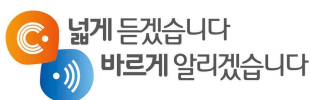
이에 국내 주요 자동차 제작사(기아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쌍용자동차(주), 한국지엠(주), 현대자동차(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의 취급설명서에 비충돌사고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내 자동차 제작사 정례협의체 구성 및 비충돌사고 예방 캠페인 시행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위 5개 제작사는 자동차 이용 소비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상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2월 4일 '국내 자동차 제작사 정례협의체'를 발족했다. 정례협의체 발족식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자동차 제작사 각사의 임원이 참석해, 자동차 비충돌사고와 같은 자동차 시장의 위해요소 선제적 발굴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 국내 자동차 제작사 정례협의체와 함께 자동차 비충돌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12월 4일부터 한 달간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 59개소 및 위 5개 제작사의 영업점, 서비스센터 등 3,716개소에 사고 위험성 및 예방방안 등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하여 소비자의 안전인식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 정례협의체를 통해 자동차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자동차 비충돌사고 위해정보 분석

가. 일반 현황

□ (연도별) 최근 3년 6개월간 3,223건의 안전사고 발생

- 최근 3년 6개월간(2014.1.~2017.6.) 우리 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비충돌사고 관련 위해정보는 총 3,223건으로, 2017년 6월까지 539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5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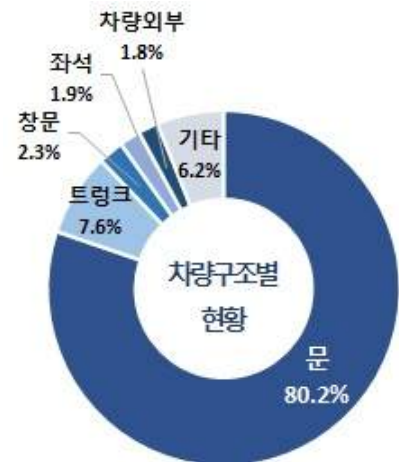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합계
				6월		
건수	900	961	823	358	539	3,223
증감률	-	6.8	△14.4		50.6	-

□ (차량구조별) '문', '트렁크', '창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90% 이상

- '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2,585건(8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트렁크' 244건(7.6%), '창문' 75건(2.3%) 순으로 나타남.

[차량구조별 현황]

순위	구분	건수(건)	비율(%)
1	문	2,585	80.2
2	트렁크	244	7.6
3	창문	75	2.3
4	좌석	62	1.9
5	차량외부	59	1.8
6	기타*	198	6.2
합계		3,223	100.0



* 시거잭, 안전벨트, 핸들, 대시보드 등

□ (연령대별) 어린이 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 가량 차지

- 만14세 이하 어린이는 1,608건(49.9%)으로 전체 비충돌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승용차의 주 운행 계층인 '30대~50대'도 3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연령대별 현황]

연령대	건수(건)	비율(%)
어린이(만14세이하)	1,608	49.9
청년(15세~29세)	264	8.2
30대	379	11.8
40대	382	11.9
50대	331	10.3
60대	135	4.1
70대이상	124	3.8
합계	3,223	100.0



나. 차량구조별(상위 3개) 상세 분석

□ (위해유형) 문 트렁크, 창문 등에 신체 일부가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 다발

- '문'과 '창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 각 1,868건(72.3%), 58건(77.3%)으로 가장 많았으며, '트렁크'의 경우에는 신체 일부가 부딪히며 발생한 사고가 174건(71.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차량구조별 위해유형(상위3개)]

(단위 : 건, %)

순위	문	트렁크	창문
1	눌림.끼임 1,868(72.3)	부딪힘 174(71.3)	눌림.끼임 58(77.3)
2	부딪힘 651(25.2)	눌림.끼임 60(24.6)	부딪힘 11(14.7)
3	추락 36(1.4)	긁힘.베임 4(1.6)	긁힘.베임 3(4.0)
기타*	30(1.1)	6(2.5)	3(4.0)
합계	2,585(100.0)	244(100.0)	75(100.0)

* 미끄러짐·넘어짐, 파열·파손 등

□ (손상부위 및 증상) 손가락과 머리를 많이 다치고 타박상과 열상 빈발

- (손상부위) '문'이나 '창문'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각 1,745건 (67.5%), 50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트렁크'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104건(42.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손상증상) '타박상'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골절'이 '열상(찢어짐)' 다음을 차지했으며, '절단' 사고도 15건 발생하는 등 중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손상부위(상위5개)]

(단위 : 건, %)

순위	문	트렁크	창문
1	손가락 1,745(67.5)	머리 104(42.6)	손가락 50(66.7)
2	눈 265(10.3)	손가락 57(23.4)	눈 6(8.0)
3	머리 155(6.0)	이마 30(12.3)	손.손목 5(6.7)
4	손.손목 153(5.9)	눈 24(9.8)	입 4(5.3)
5	이마 108(4.2)	코 17(7.0)	머리 2(2.7)
기타	159(6.1)	12(4.9)	8(10.6)
합계	2,585(100.0)	244(100.0)	75(100.0)

[손상증상(상위5개)]

(단위 : 건, %)

순위	문	트렁크	창문
1	타박상 1,179(45.6)	열상 167(68.4)	타박상 40(53.3)
2	열상 885(34.2)	타박상 39(16.0)	열상 19(25.3)
3	골절 206(8.0)	찰과상 17(7.0)	찰과상 5(6.7)
4	찰과상 152(5.9)	골절/뇌진탕 6(2.5)	뼈인대손상 3(4.0)
5	출혈 및 혈종 38(1.5)	각 6(2.5)	질식 2(2.7)
기타	125(4.8)	9(3.6)	6(8.0)
합계	2,585(100.0)	244(100.0)	75(100.0)

* 기타 얼굴 부위(귀, 볼, 턱 등),다리, 발, 몸통 등

* 절단, 기타 피부손상(부종, 박리 등),안구손상 등

다. 만14세이하 어린이 상세 분석

□ (차량구조별) 문, 트렁크, 좌석에서 사고 빈발

- 어린이의 경우, 성인(청소년)에 비해 좌석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좌석에서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시거잭'으로 인한 비충돌사고는 0.6%로 비중이 높지 않으나, 사고 대부분이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만14세 이하 어린이 차량구조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어린이(만14세 이하)		청소년 및 성인(만15세 이상)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문	1,340	83.3	1,245	77.1	2,585(80.2)
트렁크	56	3.5	188	11.6	244(7.6)
좌석	49	3.1	13	0.8	62(1.9)
창문	39	2.4	36	2.2	75(2.3)
차량외부	38	2.4	21	1.3	59(1.8)
시거잭	16	1.0	2	0.1	18(0.6)
기타*	70	4.3	110	6.9	180(5.6)
합계	1,608	100.0	1,615	100.0	3,223(100.0)

* 안전벨트, 대시보드, 핸들, 백미러, 사이드미러 등

□ (위해유형) 추락사고, 시거잭 화상 등 주의해야

- 어린이의 경우, '좌석'에서 추락하는 사고와 '차량외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각 23건(46.9%), 29건(76.3%)으로 추락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시거잭'으로 인한 사고는 모두 시거잭의 높은 온도에 의해 데이는 사고로 나타남.

[만14세 이하 어린이 차량구조별 위해유형]

(단위 : 건, %)

구분	문	트렁크	좌석	창문	차량외부	시거잭
눌림.끼임	1,073(80.1)	20(35.7)	9(18.4)	29(74.3)	-	-
부딪힘	225(16.8)	34(60.7)	10(20.4)	8(20.5)	-	-
추락	34(2.5)	2(3.6)	23(46.9)	1(2.6)	29(76.3)	-
미끄러짐 넘어짐	2(0.2)	-	5(10.2)	-	9(23.7)	-
데임	-	-	-	-	-	16(100.0)
기타*	6(0.4)	-	2(4.1)	1(2.6)	-	-
합계	1,340 (100.0)	56 (100.0)	49 (100.0)	39 (100.0)	38 (100.0)	16 (100.0)

* 긁힘·베임, 파열·파손 등

라. 비충돌사고 주요 사례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가락 절단) 2016. 10. A군(남, 만3세)은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리던 중 손가락이 문에 끼어 절단됨. ○ (눈 열상) 2017. 5. B씨(남, 만55세)는 자동차 문을 열다 모서리 부분에 눈썹을 부딪쳐 열상(찢어짐) 발생함.
트렁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 열상) 2017. 3. C씨(남, 만26세)는 주차장에서 차량 트렁크에 부딪쳐 이마와 코에 열상(치료기간 2주~4주)을 입음. ○ (손가락 골절) 2016. 4. D씨(여, 만40세)는 트렁크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 발생함.
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소실) 2016. 7. E양(여, 만4세)은 승용차 창문에 목이 끼어 호흡계통의 산소결핍으로 의식소실 발생함. ○ (입술 열상) 2016. 6. F씨(여, 만41세)는 자동차 창문이 닫힐 때 입술을 부딪쳐 입술 안쪽까지 관통되며 3mm 정도의 구멍이 발생하는 등 깊은 열상을 입음.
좌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 열상) 2016. 8. G군(남, 만10개월)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두피 열상 입음.
차량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진탕) 2017. 3. H양(여, 만1세)은 주차장에서 차문이 열리면서 떨어져,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발생함.
시거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가락 화상) 2017. 5. I군(남, 만6세)은 차량내 시거잭 안에 손가락을 넣어 화상 입음.

2

자동차 취급설명서 표시 실태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국내 자동차 5개 제작사의 각 대표 승용차*의 취급설명서
* 판매량(2017. 10. 기준) 순위 등 고려
- (조사내용) 문, 트렁크, 창문의 비충돌사고 및 어린이 관련 주의.경고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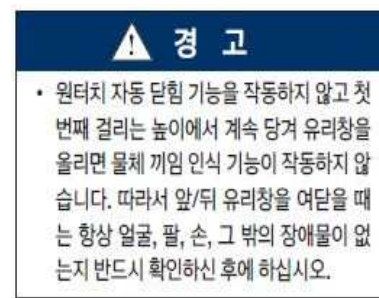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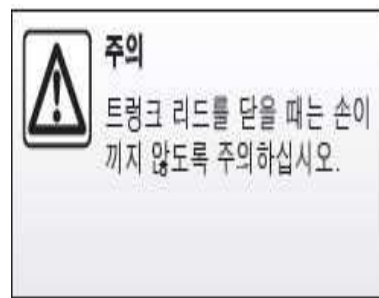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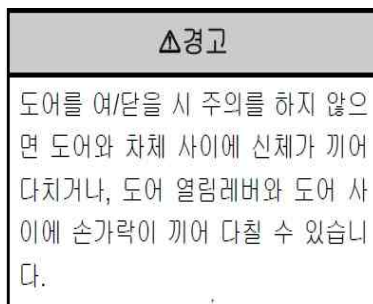
□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부딪히는 사고에 대한 경고문구 강화 필요

- 조사대상 대부분 문, 트렁크, 창문 등을 열고 닫을 때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부딪힐 수 있다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나, 글씨 크기가 작고 색상이 눈에 띄지 않아 가독성이 낮고,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움.

[취급설명서(비충돌사고 관련 경고문구 여부)]

조사대상	문	트렁크	창문
A	○	○	○
B	○	○	○
C	×	○	○
D	○	×	○
E	×	○	○

[취급설명서(비충돌사고 관련 경고·주의) 예시]



□ 어린이에게 빈발하는 추락사고나 시거잭에 의한 화상 주의 문구 필요

- 조사대상 모두 어린이에게 빈발하는 문, 좌석, 차량외부로 추락하는 사고나 시거잭에 의한 화상 주의 문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에어백, 안전벨트, 카시트, 어린이보호용 잠금장치 등 어린이 안전장치에 관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움.

3

비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차량 구입 시에는

- 자동차 취급설명서에는 차량 조작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 취급설명서를 분실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해 정보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취급설명서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체 일부가 끼거나 부딪히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 자동차의 문, 트렁크, 창문을 열고 닫을 때는 손, 머리 등의 신체가 끼이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합니다.
- 뒷좌석에 어린이가 탑승해 보호자가 문을 닫아주는 경우, 아이가 완전히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을 닫습니다.
- 창문에 끼임방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도 과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일정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끼임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질식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트렁크는 일정 위치에서 스스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으므로 트렁크에 짐을 싣거나 내릴 때 신체 일부가 부딪히거나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 어린이가 앉아 있는 쪽의 문과 창문은 어린이가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걸어둡니다.
- 외부에서 문을 열 때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착석해있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시거잭은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직후 소켓에 넣고 어린이가 뽑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차안에 혼자 두지 않고, 차 안을 놀이 장소로 인식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4 자동차 비충돌사고 예방 포스터



Warning!

자동차 비충돌사고, 차량 탑승시 안전에 유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SSMS)에 2016년 6개월(0004.1~0007.6) 접수된 사고

